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문법 및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마수지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문법 및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

Middle School Students' Interest and Self-confidence in
Learning English Grammar: Their Relationships to
Grammar & Speaking Skills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마수지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문법 및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

지도교수 김경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마수지

마수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박사 이은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자 (인)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x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3
1.3 연구 문제	3
2. 이론적 배경	4
2.1. 영어 문법학습의 중요성.....	4
2.1.1 문법의 정의.....	4
2.1.2 영어 문법학습의 필요성.....	5
2.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7
2.3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	9
2.3.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문법 능력과의 관계	10
2.3.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	11
3. 연구 방법.....	13
3.1 연구 대상.....	13
3.2 연구 도구.....	14
3.2.1 설문 조사지.....	15
3.2.2 인터뷰 질문.....	16
3.2.3 문법 능력 평가.....	16

3.2.4 말하기 능력 평가.....	17
3.3 자료 수집 방법.....	19
3.4 연구 자료 분석 방법.....	19
4. 연구 결과 및 논의.....	20
4.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	20
4.1.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20
4.1.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	23
4.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	25
4.2.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문법 능력과의 상관관계.....	25
4.2.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과의 상관관계.....	27
5. 결론.....	30
5.1 연구 요약.....	30
5.2 교육적 함의.....	31
5.3 연구의 제한점.....	33
5.4 후속 연구 제언.....	33

참고문헌..... 35

부록 1..... 41

부록 2..... 43

부록 3 45

부록 4 47

부록 5..... 49

부록 6..... 51

부록 7 52

표 목차

표 1 사전적 의미의 문법에 대한 정의.....	4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14
표 3 설문지와 문항 구성 및 배점 방식.....	15
표 4 문법 능력 평가지 문항 구성.....	17
표 5 말하기 평가지 문항 구성.....	18
표 6 말하기 능력평가 채점 기준	18
표 7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21
표 8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	24
표 9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과의 상관관계.....	25

ABSTRACT

Middle School Students' Interest and Self-confidence in Learning English Grammar: Their Relationships to Grammar & Speaking Skills

Su Sie Ma

Advisor: Kyung Ja Kim,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est and self-confid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learning English grammar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they have with English grammar and speaking skills. For this purpose, 27 middle school students in G city participated in a survey, which is composed of background information questionnaires along with interest and self-confidence in learning English grammar. The study also assessed the participants' grammatical knowledge and oral proficiency. In addition, two students were selected from each proficiency group (top-level, middle-level, and low-level) to attend an in-depth interview.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interest and self-confidence in learning English grammar were not high, which is mainly due to frequent exams and being required to memorize large amounts of vocabulary and grammar points by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middle schools. However, the students were assessed their own interest and self-confidence as high in the in depth interview. Thus,

the quantitative results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qualitative data, suggesting further studies on this research issu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est, self-confidence and English abilities (grammar and speaking) were positiv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ason for the non-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interest, self-confidence and English abilities were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very small. Furthermore,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interest and self-confidence, the students showed similar mean scores across questionnaires items.

Lastly, the relationship regarding the results of grammar knowledge and speaking ability test showed that the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proving the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about how to increase interest and self-confid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learning English grammar were suggested. In addition, some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improve students' grammar and speaking skill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빠르고 정확한 최첨단 정보기기의 발달로 요즘은 1초 안에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벗어나 보다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접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2015년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육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그들의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영어과 핵심 역량 중 ‘자기 관리 역량’에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많은 학자들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말할 때, 사회 언어학적 능력 및 담화 능력과 함께 문법능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Canale & Swain, 1980; Celci-Murcia, 1991). 또한, 여러 비교 실험을 통해 문법 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언어 습득 면에서 언어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 시킨다는 결과들을 밝힌 바가 있다(Ellis, 2006). Pienemann(1984)은 문법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그 언어자료들을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전한다. Spada, Jessop, Suzuki 와 Valeo(2014)는 우리나라와 같이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환경에 놓인 학습자들은 단순히 입력(input)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문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 언어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문법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라 할 수 있겠다. Long(1991)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가 문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 문법적인 설명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법 지도가 학습자의 자신감 향상과 문법 지식에 관심을 가져와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과 같은 맥락을 한다(장우경, 2016). Lee와 Oh(2017)는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 언어에 대한 숙련도(proficiency)와 연관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윤정현(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약 70%의 학생들이 문장의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 말하기 학습에 자신감을 느끼고, 학습한 문법을 바로 말하기에 직접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전한다. 이는 Larsen-Freeman(2001)의 문법적 지식은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3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김도원(2017)이 말하기 능력에서 문법 표현이 학습자의 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듯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영어 능력 신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윤정현(2016)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의 문법 지식과 말하기 능력과의 상관관계 실험에서 영어 말하기 수준에 따라 문법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바가 있었고, 이 실험을 통해 높은 레벨의 문법 지식을 갖춘 학습자는 말하기에 있어서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이렇듯, 말하기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법학습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교사들은 암시적 방법 및 명시적 방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교수법들을 동원하여 학습자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동안 영어 말하기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노정남, 2016; 박선란, 2010; 배태일, 2013; Cho, 2017),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법에 대한 정의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는 있었지만(유주애, 2017; 장우경, 2016), 영어 능력에 있어서 중학생들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분석하고, 그들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이 영어능력(문법, 말하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문법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조사하고,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그들의 영어능력(문법,말하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 문제

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두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들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그들의 영어능력(문법, 말하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왜 문법학습이 중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 밝혀보고,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영어 능력(문법, 말하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2.1 영어 문법학습의 중요성

2.1.1 문법의 정의

문법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전마다 그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는 ‘규칙’ 혹은 ‘법칙’ 이다. 문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표 1과 같다.

표 1

사전적 의미의 문법에 대한 정의

사전	내용
Cambridge	정확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낱말이 또 다른 낱말과 결합하는 규칙
Longman	단어가 형태를 바꾸고 문장으로 결합되는 규칙
Macmillan	문장이 형성 되어지는 법칙

Brown(2001)은 문법은 낱말들의 위치와 그 관계를 다루는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고, Ur(1988)은 문법은 긴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들을 조작시키고 결합하는 규칙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Thornbury(2011)는 소리, 단어와 문장이 서로

구성하는 형태가 나열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법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문법을 문장 생성도구라고 일컫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이며, 화석화(fossilization)를 막는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Batstone(1994)은 문법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라고 하였으며, 김강석(2017)은 좁은 의미에서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 또는 원리나 원칙이라고 하였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이란 음운에 관한 현상이나 어휘, 의미에 관한 기술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문법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장 속에서 단어들 간의 결합이고, 변화할 시 지켜져야 될 규칙 혹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영어 문법학습의 필요성

이소영(2004)은 음성 언어 중심의 교육을 받고 온 학습자들은 간단한 문장을 듣고 말하는 데에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학습한 문장을 또 다른 문장으로 응용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학습자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잦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는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 영어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문법적으로 틀린 발화에도 바로 오류 수정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교육부, 2015).

장우경(2016)은 문법 교육을 경시하고 유창함만을 강조한 교수법에서 학생들은 유창함은 보이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가는 잘못된 발화를 하는 화석화 현상을 보이는 연구들이 종종 보고 되어 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것은 영구적일 수 있는 중간 언어(interlanguage)로 이어진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어에 대한 노출과 기회가 매우 적은 EFL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정확하고 유창한 발화를 터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다는 체계적인 언어의 규칙으로 정확한 발화부터 연습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학습방법이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Higgs와 Clifford(1982)의 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법 능력이 뛰어났던 학습자들은 꾸준한 발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문법 능력에 비해 어휘력과 유창성이 더 뛰어났던 학생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정체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차은희, 2017에서 재인용). 이는 문법 지식이 없이는 외국어를 습득하고 발전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elce-Murcia(1991) 역시도 문법학습을 시키지 않는 외국어 수업에서 학생이 자신이 구사한 표현들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경우, 스스로 유창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음이나 문법적인 부분에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했던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학습에 진전이 없이 그 상태에 멈춰 버리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박진하, 2014에서 재인용).

Ellis(2006) 주장에 있어서도 제2 언어의 문법을 배우지 않을시 학생들은 어려운 구조의 문장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문법학습은 제2 언어의 질을 높여 준다는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김영광(2010)은 학습자의 언어 현상의 이해력과 잠재적 영어 사용능력 개발을 위해서 문법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박도현(2020)에 따르면 제2 언어학습에 있어서 언어 형식에 대한 교수가 없이는 성공적인 학습이 어렵다는데 많은 학자들(Gutierrez, 2013; Renou, 2001)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과 나경희(2012)는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법적 규칙을 학습해야하고 동시에 실제로 어떻게 그 규칙을 적용하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허용되는지도 함께 알아야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법이 영어 능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본 연구자는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들을 위해서라도 문법학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법 수업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2015년 교육부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흥미와 말하기 위주의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 교육을 받아 온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올라와 문자로 된 문법학습을 접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이지선, 2018). 실제로, Gardiner(2012)는 문법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설문한 곳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문법 교육은 지루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김도원(2017)은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을 지루해하고 문법은 그냥 단순히 ‘시험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실험자의 53%가 응답했다고 한다. 이수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법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우경(2016)은 중3 문법학습의 중요성과 흥미도 분석에서 학습자들은 ‘문법학습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문법에 흥미가 있느냐’의 질문엔 40.5%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았다. 즉, 다시 말하면 중학생 학습자들은 문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흥미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 한 연구로는 최근 발표한 박도현(2020)의 연구 결과에서도 학습자들이 대부분 문법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것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문법 자체에는 흥미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문법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는 낮다는 결과를 알 수 있겠다. 이는 여전히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이나 교수법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김도원(2017)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해 추가적인 문법 수업을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영어 문법에 대한 흥미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실험군은 통제군 학생들보다 영어 문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정규 영어 문법 수업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는 문법에 대한 낮은 흥미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업 중 문법 인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다. 학생들에게 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심어준다면 분명 그 흥미와 자신감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래의 교사 중심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으로 전환 되면서 문법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의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교수 이론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으나, 학습자가 ‘어떻게’ 배우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과 최정임, 2020). 모든 학습의 결과는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임할 때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법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언급되어지면서 문법학습 또는 외국어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황정현(2015)은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방법 중하나가 바로 게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교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높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만 수업하는 교실에서 의사소통 게임을 실험한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게임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시켜 자연스런 상호 작용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분명 게임을 사용한 문법 지도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박선민(2015)의 역할극(role-play)을 활용한 문법 지도에서 연구자는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대본을 만들어 역할극을 지도해 보았다. 대본 속의 문법 내용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재완료, 수동태, 사역동사에 대한 문장들이었고, 사전에 명시적인 문법 설명과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애니메이션 대사에 활용하여 역할극으로 익히게 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업을 하는 동안 점점 많은 학생들이 대본의 대사를 스스로 응용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구조까지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Celce-Murcia(1991)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놀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라 하였다. 동시에 문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매우 유용한 지도방법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박선민, 2015에서 재인용).

백현희(2009) 연구에서는 구문 드라마 기법을 사용하여 문법을 지도하였는데 말하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임호성(2017)은 블렌디드 교수법을 사용한 실험 결과에서 사용 전보다 평균 점수가 8.43 증가했다고 전한다. 그는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영어 문법에 대한 흥미가 증진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현정(2017)은 PACE 교수법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관계대명사를 가르치는 실험을 하였고, 실험집단은 학습자와 교수자 둘다 문법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아(2017)의 연구에서는 코퍼스 활용 형태 초점 지도법을 통한 문법학습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흥미를 보이는 상태의 효과를 보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이지선(2018) 연구에서는 문법 지도 순서의 변경만으로도 문법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전한다. 문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자신감은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권연희, 2013; 김나영과 김형엽, 2011; 김승준과 김갑수, 2012; 조세경, 2009).

2.3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은 매우 드물기에 본 연구자는 문법학습 혹은 영어 학습에 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로 보다 넓게 살펴보려고 한다.

2.3.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문법 능력과의 관계

한이슬(2018)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9%가 재미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문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미은(2008)는 흥미를 한 개인이 특정한 대상, 활동, 이해, 기술 또는 주의 집중이나 획득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충동으로 경험을 통해 조직된 성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나현(2017)은 흥미는 학습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에 대상이 되므로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은정(2013)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Lee와 Oh(2017)는 학습자의 자신감은 언어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EFL학습자들이 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학습자들보다 훨씬 더 낮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학교에서 영어 학습을 10년 이상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가 적은 만큼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ESL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실로, 한이슬(2018)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을 상대로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인 59.6%가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한국 학습자들은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낮음을 증명하였다. Bandura(1994)는 자신감은 자기 통제력과 신념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불안감을 통제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킨다고 명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영어 문법학습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곧 발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Lee와 Oh(2017) 연구에서의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곧 영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주향아(2017)는 자신감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

내심을 갖고 견뎌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문법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원혜연(2008)은 경기 영어마을의 4박5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자신감 상승과 영어 능력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바가 있었다. 또한, 주향아(2017)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영어마을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됨에 따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바가 있었다. 박진하(2014)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암시적 교수방식으로 학습자들의 문법에 대한 흥미도 향상과 함께 영어 학습 능력에도 큰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김나현(2017)의 동화 수업을 활용한 영어 학습의 흥미도를 측정하는 실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항목이 동화 수업에 의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이 다소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3.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

손희정(2020)은 말하기 능력이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상대방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즉 언어활동의 가장 큰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를 보면, 김미혜(2007)의 연구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정확한 말로 상황을 묘사할 수 있고 일련의 생각들에 관해 서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이러한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도 발화시 오류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유창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권오현(2016)은 제2 언어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언급하면서 이는 영어 말하기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 할 만 한 연구로는 김현주(2012)의 영어 마을 체험 전후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을 비교한 실험이다. 그 결과, 93.4%의 학생이 체험 후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며, 특히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이 매우 두드러져 보였다고 한다. 주향아(2017)의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서도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영어발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지아(2017)의 연구에서는 사전 인터뷰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았으나, 코퍼스 활용 형태 초점 지도법을 통한 문법 학습으로 피험자 전원의 영어 말하기를 비롯하여 영어 활용 능력의 전반적인 성장을 느꼈고,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모두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박진하(2014)의 연구에서는 형태초점의 암시적 및 명시적 교수방식을 통해 실험자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상승함에 따라 영어 말하기 실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말하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대한 상승으로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이 높아진다면, 말하기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정현(2016)의 연구에서는 문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말하기 수준도 높았음을 언급했고, 권오현(2016)의 연구에서는 영어 회화 수준이 높을수록 문법 습득도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전체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나, 본 연구는 영어 학습 중에서도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분석하여, 그것이 각각 문법 및 말하기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고, 그것이 영어 능력(문법, 말하기)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초설문을 비롯하여 흥미와 자신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사후 평가 없이 현재 상태의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각각 평가하여 흥미와 자신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중 인터뷰까지 실시하여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3.1 연구 대상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G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자 중학교 2학년이고, 모두 남학생 27명으로 구성 되어져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이 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사립 중학교로서 국·공립 학교에 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가 다소 많은 편이며, 소재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여자들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여 총 22명으로 영어 학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영어 수업($n=14$)과 학습지($n=5$) 순이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및 학습을 한 학생들은 총 3명이었고, 18명은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의 영어 학습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절반이 넘는 15명이 5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고 응답하는 반면, 2명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학습 비중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는 표 2와 같이 문법($n=1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해($n=16$), 말하기($n=7$) 순이었다. 선호도에 있어서 역시도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학습 비중과 같은 문법($n=11$), 독해($n=9$), 말하기($n=7$) 순이었다.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자의 대다수인 22명이 사설학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문법 수업이 재미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15명이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고, 문법 지식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

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11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항목	구분	응답자 수
학습비중(복수 응답 가능)	듣기	5
	말하기	7
	독해	16
	작문	2
	문법	17
선호영역(복수 응답 가능)	듣기	5
	말하기	7
	독해	9
	작문	3
	문법	11
영향요인	사설학원	22
	학교 영어 선생님	3
	자율학습	2

표 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학습 비중과 선호 영역의 1순위가 문법, 2순위가 독해인 순서로 같은 순위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사립중학교 특성상 공립학교와는 달리 자체 시험과 평가가 잦은 이유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5시간 이상의 학습시간과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사설학원으로 미루어 볼 때 학습에 큰 관심을 보이는 지역구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부록 1 참조)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관한

설문지, 문법 능력과 말하기 평가지 그리고 인터뷰로 양적 연구에 질적 연구를 더하였다.

3.2.1 설문 조사지

본 연구에서는 유주애(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기초조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지선(2018) 연구의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영어 문법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관한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표 3과 같이 기초조사 설문 8문항,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10문항,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 10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2, 3 참조).

기초조사 설문지의 배점 방식은 선택형 문항과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고, 영어 문법학습의 흥미와 자신감은 리커트 5점 척도만을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어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에 오는 표 3은 설문지와 문항 구성 및 배점 방식을 나타내었다.

표 3

설문지와 문항 구성 및 배점방식

설문지	문항 수	배점 방식
기초조사	8	선택형 6문항+리커트 5점 척도 2문항
영어 문법 흥미도	10	5점 척도
영어 문법 자신감	10	5점 척도
전체	28	

3.2.2 인터뷰 질문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양적 연구와 함께 설문 조사에 응답한 27명 중 영어 능력이 ‘상’인 학생 2명과 ‘중’인 학생 2명 그리고 ‘하’인 학생 2명, 총 6명을 선발하여 심층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은 전부 가명으로 기재하였고, 선정 기준은 최근 시행한 기말고사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상/중/하위를 선별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영어와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이해정도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관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영어 문법 시간 중 가장 흥미로웠던 시간과 문법을 잘 알면 영어 말하기도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4 참조).

3.2.3 문법 능력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은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에 관한 설문 응답 직후 바로 문법 지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1학년에서 배웠던 시제 관련 14 문항과 2학년에서 배운 문법 관련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현재 많은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자습서(미래엔/천재교육)를 참고하여, 어휘만 부분적으로 수정한 후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문항 유형으로는 선택형 13 문항, 서답형 7문항으로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배점은 모두 5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부록 5 참조).

표 4
문법 능력 평가지 문항 구성

문제 유형	배점	문항수	답안 유형
현재시제(긍정/부정/의문)	35	7	선택형 6문항+서답형 1문항
과거시제(긍정/의문)	10	2	선택형 1문항+서답형 1문항
미래시제(긍정/부정/의문)	25	5	선택형
to부정사	5	1	선택형
관계대명사	5	1	선택형
동명사	5	1	서답형
가정법	5	1	서답형
비교급/최상급	10	2	서답형
		100	

3.2.4 말하기 능력평가

말하기 능력평가는 연구자의 각각의 질문에 학생이 즉시 대답하는 일대일 구두 면담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문항은 앞서 언급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미래엔)와 2학년 교과서(천재교육)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어휘 부분만 수정하여 표 5와 같이 시제 관련 6문항, to 부정사를 비롯한 교과서 관련 문법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져 있다.

말하기의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필요하였다. 하여, 본 연구자는 최현정(2009)의 ‘영어 말하기 능력 분석 채점 기준표’를 근거하였고, 이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말하기 평가 척도를 부록 6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평가 기준은 주저함 없이 부드럽게 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유창성 50점(각 문항 당 5점), 문법 규칙에 의거하여 실수 없이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확성 50점(각 문항 당 5점),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적합성 50점(각 문항 당 5점)으로 총 150점 만점(각 문항 당 15점)으로 하였다.

표 5
말하기 평가지 문항 구성

문제 유형	배점	문항 번호
현재시제	30	1,7
과거시제	15	2
미래시제	30	3,4
to부정사	15	5
전치사	15	6
현재 진행형	15	8
비교급	15	9
조동사	15	10
150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실용영어 및 영어회화를 초.중학교에서 5년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직접 행해졌다. 유창성, 정확성 그리고 적합성 이 세 부분에 대한 점수는 부록 7과 같이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각 문항 별로 평가 기준표에 의해 채점을 하여 문항지에 기입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채점 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말하기 능력평가 채점 기준

구분	채점 기준
유창성	대화가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말하는 정도
정확성	실수 없이 복잡한 구조까지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정도
적합성	질문을 이해하여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정도

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 27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5일 기초설문과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관한 설문 및 문법 지식 능력평가, 그리고 말하기 능력 평가와 인터뷰까지 모두 당일 영어 정규 수업시간과 창의 체험 활동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기초설문지와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및 문법 지식평가까지는 30분가량 소요되었고, 말하기 능력평가는 1인당 총 6분으로 제한을 두고 실시하였다. 참여자에게 배부된 설문지와 평가지는 말하기 능력평가 직후 연구자에 의해 100 퍼센트 회수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6명은 모든 평가를 마친 후, 별도로 마련된 어학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각각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답은 참여자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

3.4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그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빈도, 평균, 표준편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흥미와 자신감과 영어능력(문법, 말하기)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 자료는 귀납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녹음된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류 및 표제를 부여하였다. 또한, 전사된 인터뷰 자료의 분석 과정과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 방법 및 결과의 일부를 인터뷰 참여자와 공유(member check)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 그리고 영어능력과의 관계 및 결과들을 비교 검토하는 등 분석 과정 결과 보고에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Creswell, 2015; Merriam, 1998).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는 영어 능력(문법, 말하기)평가를 통한 결과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에 관한 심층 인터뷰 내용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4.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

연구 참여자 총 27명을 대상으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대해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를 보면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평균은 3.29이고, 자신감에 대한 평균은 3.43으로 학습자들의 자신감이 흥미도보다 0.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표 7은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의 흥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흥미도 관련 총 10문항을 분석한 결과 평균 2.48에서 3.85 사이로 나타났고, 그 평균은 3.29로 그리 높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사립중학교의 특성상 여전히 시험과 암기에 기반을 둔 입시 위주의 수업에 대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영어 문법은 예외가 많아 이해력 보다는 암기력이 더 필요시 되기에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수업이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독해 수업에 비해 그 재미가 적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표 7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항목	1*	2	3	4	5	M	SD
1. 나는 영어 문법학습에 관심이 많다.	1**	2	12	11	1	3.33	.83
2. 나는 영어 문법 수업이 다른 영역(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보다 재밌다.	2	8	10	6	1	2.85	.99
3. 나는 영어 문법 시간에 새로운 문법 내용이 나오면 호기심이 생긴다.	1	4	12	8	2	3.22	.93
4. 나는 영어 문법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1	12	9	4	3.52	.94
5.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4	2	11	9	3.85	1.17
6. 나는 문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나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는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3	7	12	4	3.56	1.01
7. 나는 영어 수업에서 문법 배울 때가 가장 지루하다.	3	14	5	4	1	2.48	1.01
8. 나는 영어 공부할 때 주로 문법 공부를 한다.	1	5	7	13	1	3.30	.95
9. 나는 문법에 흥미가 없어서, 영어 말하기도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5	9	8	5	0	2.48	1.01
10. 나는 영어 문법에 흥미를 느끼면, 영어 말하기도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4	10	11	1	3.26	.90
전체						3.29	.55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이것은 Lee와 Oh(2017)의 연구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은 지루하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듯, 학습자들에게 있어 여전히 문법이 그리 흥미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장우경(2016)의

문법 수업이 포함된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의견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문항 5)가 총 27명중 20명이 ‘그렇다’로 가장 높은 평균($M=3.85$)으로 나타났다고, 근소한 평균 차이로 ‘나는 문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나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아 질것이라고 생각 한다’(문항 6)가 평균 3.56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밖에 평균($M=2.48$)이 가장 낮았던 양적 연구 문항으로는 7번 문항의 ‘나는 영어 수업에서 문법을 배울 때가 가장 지루하다’ 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학생들이 영어 문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높으나 정작 학교 수업에서는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최근 발표한 박도현(2020) 연구를 보면 학습자들 대부분이 문법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영어 문법학습 자체에는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점심시간을 이용한 인터뷰에서는 양적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양적 연구 결과에서는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그리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영어에 대한 선호도와 문법 수업의 흥미에 관한 응답 결과가 인터뷰 대상자 총 6명중 중.상위권 학생들 4명 모두 영어를 좋아한다고 답했고, 문법 수업이 재미있다고 답을 하였다.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어요. 영어 문법수업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은 쉬운 것을 배우니까 재밌어요. [태양, 상위권]

반면, 나머지 하위권 학생들 2명은 모두 영어를 안 좋아한다고 답했고, 문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미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 영어 문법 수업의 수준이 중. 상위권에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1.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

표 8은 EFL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의 자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자신감 관련 총 10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2.56에서 3.85 사이로 분포 되었고, 전체 평균은 3.43으로 흥미도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0.14 차이로 약간 높게 나왔다. 자신감 역시도 높은 평균 점수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은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흥미도와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겠다. 이는 Lee 와 Oh(2017)의 연구에서 EFL 학습자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고 언급하고 있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는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나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높았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유주애, 2017).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 ‘나는 영어문법을 배우고 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문항 1)가 가장 높은 평균($M=3.85$)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문법에 대한 자신감 설문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M=2.56$)으로 나온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우면 불안하다’(문항 9)를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법에 대해서 부담감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신감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는 양적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인터뷰 질문 중 문법 수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상위권 4명은 모두 선행학습으로 배웠던 부분이라 최소 70%에서 최대 100% 이해가 된다고 답을 하였고, 하위권 2명은 학교 문법 수업의 이해가 50%도 안 될 것이라고 답을 하였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영어 학습 영역을 물어본 결과 6명중 3명이 문법이라 답을 하였고, 나머지는 각각 독해, 듣기, 말하기로 언급되어졌다.

표 8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

항목	1	2	3	4	5	<i>M</i>	<i>SD</i>
1. 나는 영어문법을 배우고 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0	1	10	8	8	3.85	.90
2. 나는 영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휘, 독해, 듣기보다 문법 문제가 더 자신 있다.	4	7	8	6	2	2.81	1.18
3.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문법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0	5	12	7	3	3.30	.91
4. 나는 영어 문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영어 문법에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0	1	8	14	4	3.78	.75
5. 나는 영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기면 영어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0	4	9	9	5	3.56	.97
6. 나는 영어 문법 실력이 좋을수록, 영어의 모든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실력도 좋아 질 거라고 생각한다.	0	8	5	7	7	3.48	1.19
7.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이 쉽다.	1	0	14	7	5	3.56	.93
8. 나는 영어 문법에 자신이 없다.	3	7	9	6	2	2.89	1.12
9.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우면 불안하다.	2	13	8	3	1	2.56	.93
10. 나는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	5	9	9	4	3.44	.97
전체						3.43	.62

양적, 질적 연구를 모두 종합해 해석해 볼 때 학습자들 대부분은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문법은 여전히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학교 보다는 사설 기관에서 선행학습으로 본인의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문법 수업을 꾸준히 받아 온바 늘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채로 학습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4.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문법, 말하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자신감과 영어 능력과의 상관관계

	흥미도	자신감	문법 능력
자신감	.662*		
문법 능력	.196	.027	
말하기 능력	.347	.179	.785*

* $p < .001$

4.2.1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문법 능력과의 상관관계

표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문법 능력과의 상관관계($r=.19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도연(2017)연구에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법학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문법지식 평가 평균도 상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문법학습은 교과 성취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연희, 2013; 김나영, 김형업, 2011; 김승준과 김갑수, 2012; 조세경, 2009)들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문법 능력과의 상관관계($r=0.27$)는 앞서 언급한 흥미도 보다도 더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는 Lee와 Oh(2017)의 연구 중 EFL 학생들의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오랜 학습 기간으로 상당한 실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질적 연구에서도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중 한 명은 문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다는 의견(태양)도 있어 이는 이번 상관관계 결과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서 언급했듯, 본 연구에서 문법 수업에 대한 흥미를 묻는 인터뷰 질문에 수업이 재미있다고 답변을 한 4명의 학생들은 모두 중.상위권 학생들로 학교 문법 수업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 70%~100% 이상 이해된다고 답을 하였다. 즉, 영어 문법학습을 재미있어하는 학생들은 문법 능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번 양적 연구의 상관관계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이번 질적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문법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측정된 이유는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가 27명으로 매우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 다른 이유라면 바로 흥미도 분석에서 (표 7 참조)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서라고 판단 해 볼 수 있겠다.

영어 문법학습의 자신감에 대한 문법 능력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연구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EFL 학습자의 특성상 한국 문법과는 다른 영어 문법구조에 익숙하지 않음과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이 맞는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2.2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과의 상관관계

표 9에서 보여주듯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말하기 능력과의 상관관계($r=.347$)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현희(2009)연구의 영어 문법학습에 흥미가 있는 수업은 분명 말하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상관 계수가 비교적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되고는 있지만 역시 참여자 숫자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표 7 참조)를 묻는 양적 연구 질문 중에서 문항 9번에 ‘나는 문법에 흥미가 없어서, 영어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M=2.48$)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학습자들은 영어 문법에 대한 흥미는 말하기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 상관관계의 결과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과의 상관관계($r=.179$)는 앞서 언급한 흥미도의 상관관계보다 더 낮게 분석되었고, 이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첫 번째 이유는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과 같이(표 8참조), 평균 2.56에서 평균 3.85까지 전반적으로 자신감의 점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이와 관련된 자신감 설문지 문항 5번(표 8 참조)을 보면 ‘나는 영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기면 영어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있었고, 이 문항의 평균은 3.56으로 학습자들의 대략 절반 정도만이 문법을 알아야 말하기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영어능력(문법, 말하기)의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의 상관관계($r=.662, p<.001$), 영어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과의 상관관계($r=.785,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습자들은 문법에 대한 자신감도 높고, 문법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말하기 능력

도 함께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전 여러 선행연구(김도원, 2017; 김민지, 2012; 박진하, 2014; 윤정현, 2016; 차은희, 2017)에서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을 한 번 더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질적 연구 중에서 ‘영어 문법을 잘 알면 말하기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 질문에 총 6명중 3명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즉, 학생들은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말하기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대답한 3명은 모두 중.상위권 학생들이었고, 대부분 영어 문법학습에 자신이 있는 학습자들로, 문법을 배움으로써 본인들의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스스로 경험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법을 잘 알면 문법 구조에 단어만 넣으면 되니까 말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문법을 알면 말하기도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태, 중위권]

반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 공부에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뷰 참여자 총 6명 중 4명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 중 유찬(하위권)이는 문법과 말하기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여, 이번 연구의 문법과 말하기 능력의 유의미한 결과와는 상반됨을 볼 수 있었다.

말하기는 영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면 되는 것이지, 문법을 몰라도 유창하게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기는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바로 말해야 하는데 그 문법 규칙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준석, 상위권]

영어는 어떻게든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지, 문법을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찬, 중위권]

종합적으로, 본 연구 주제인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문법 및 말하기 능력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가 거듭 언급하게 되지만, 연구 참여자 수가 매우 적었음에 무게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흥미 설문결과(표 7 참조)와 자신감에 관한 응답결과(표 8 참조) 분석에 대한 평균 점수 분포도가 다양하지 않아 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수를 늘려 앞으로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안겨 주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문법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분석해 보고, 이는 영어 능력(문법, 말하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G 시의 중학생 총 27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조사 및 문법학습의 흥미와 자신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이어서 영어 능력평가를 위하여 문법 지식평가 총 20문항, 말하기능력 평가 총 10문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급에서 영어 능력 상.중.하 실력의 학생들을 각각 2명씩 선발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흥미도 평균과 자신감에 대한 평균이 둘 다 그리 높지 않게 나왔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와 사립 중학교의 특성상 잦은 시험과 많은 분량의 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립기관에서 늘 본인의 수준보다 어려운 문법 수업을 받아 온 경험으로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낮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문법능력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다른 이유라면 EFL 학습자들의 특성상 문법학습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배운 문법이 맞는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의 상관관계 역시도 유의미한 결과를 갖진 못했다. 하지만, 흥미도와 말하기 능력의 상관 계수는 다

른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즉, 숫자가 적은 관계로 상관관계수가 적게 나오긴 했지만, 숫자가 많았다면 분명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는 말하기 능력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문법 및 말하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 반면,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들은 역시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법 능력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말하기 능력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6명의 학생들 중 중.상위권 4명의 학생들 모두 학교에서 하는 영어 문법 수업이 재미있고, 수업내용의 70% 이상 이해가 간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질적 연구 내용 중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에 관한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총 6명중 3명만이 문법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말하기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을 하여 양적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5.2 교육적 함의

중학생들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을 분석하고, 그러한 흥미 및 자신감이 영어 능력(문법, 말하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그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있어서 평균 점수가 그리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 이상의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뷰 참여자 총 6명 중 영어 능력 중.상위권 4명이 영어 문법 수업이 재미있고, 영어 문법학습에 자신 있다고 응답한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분명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영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문법학습은 영어 능력에 있어서 기초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교사는 학

습자의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유주애(2017)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안하였듯, 영어 실력이 상.중.하인 학습자들이 함께 구성된 조를 편성하여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분담해주고, 주어진 조별 과제를 풀어나가게 한다면 흥미와 자신감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관심분야를 이용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문법지도 방식도 문법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져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주(2012)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과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준별 수업자료를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자료 및 학습과제에 있어서 상.중.하로 구별하여 학습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수업을 중간수준의 학습자에게만 맞춘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감은 유지하겠지만, 수업이 지루해서 흥미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하위권 학습자들은 어려워서 흥미 및 자신감까지 모두 떨어질 것이다. 영어 문법학습에 있어서 수준별 활동자료 및 학습 자료는 흥미와 자신감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영어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현희(2009)의 연구에서는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고, 질적 연구 결과에서도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이 영어 능력도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분명 영어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주향아(2017) 연구의 영어 마을 체험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보다 다양한 수업 방식과 활동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조사하고, 영어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함이었는데,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G 소재의 중학생 27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매우 적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 중학교 특성상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어린 나이부터 사설 기관의 힘을 빌려 선행학습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에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이 27명 모두 남학생으로, 대체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언어에 관심이 더 많은 여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면, 아마도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있어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5.4 후속 연구 제언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연구에 있어서 참여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신뢰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학습자를 더 많은 숫자로 참여시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그에 따른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에 대한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복제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남학생뿐 아닌 여학생의 참여 및 국.공립 학생까지 다양한 학습자들이 참여했을 시에도 과연 상관관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중학생 대상으로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넓혀 간다면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

는 설문 조사와 학습자들의 현재 상태만을 평가했지만, 추후에는 앞서 제시한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직접 실험 해본 후,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과 말하기 능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사후 평가까지 시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문법학습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앞으로도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주제가 바탕이 된 연구 수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학습자들에게 있어 영어 문법학습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 권연희. (2013).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대학생 영어 학습 사례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6(1), 37-65.
- 권오현. (2016).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문법 습득도와 말하기능력과의 상관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김강석. (2017). *영문법 대계 1*. 서울: 밥북.
- 김나영, 김형엽. (2011). 스마트폰에서의 App 활용을 통한 English Reading 교육에 대한 연구: 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13(2), 319-349.
- 김나현. (2017). *영어 동화 활용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의 독해력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 김도원. (2017).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중학생의 영어 문법 학습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 부경대학교.
- 김미해. (2007). *초등영어교육에서 효과적인 말하기 학습을 위한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 김민지. (2012). *명시적 문법 지도가 성인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 대학교.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김승준, 김갑수. (2012). 형태초점 교수법 기반 초등학교 영어 단어 학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정보 교육 학회논문지*, 16(2), 223-231.
- 김영광. (2010). *영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민 대학교
- 김지아. (2017). *형태 초점 지도법을 통한 문법학습의 효과에 관한 사례 비교 연구: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 사례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 김진영, 나경희. (2012). *형태초점 의사소통교수법의 활용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 문법지식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 충북대학교.
- 김현주. (2012).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따른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대한 인식 비교*.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부산: 부경대학교.
- 노정남. (2016). *의사소통전략 지도를 통한 중학생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청주,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문진영. (2006). *영어 이해능력과 말하기능력 간의 상관 연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박도현. (2020). *중학교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명시적 문법 학습 방식 및 인식 비교*.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선란. (2010). *중학생 영어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청주,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박선민. (2015). *중2 수준별 중하반 학생들의 형태초점 교수법을 활용한 역할극 수업 활용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김해, 경남: 인제대학교.
-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20). *교육방법의 교육 공학적 이해*. 파주, 경기도: 교육과학사
- 박진하. (2014). *암시적 및 명시적 및 문법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 대학교.
- 배태일. (2013).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요인 분석: 영어 교육연구, 25(1), 145-160.*
- 백현희. (2009). *구문 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문법 지도가 초등학생의 영어 말하기와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진주, 경남: 진주 교육대학교.
- 손희정. (2020). *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와 쓰기에 나타난 문법 오류 분석*: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천안, 경기도: 단국대학교.
- 원혜연. (2008). *영어마을 체험을 통한 몰입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강릉: 강릉대학교
- 유주애. (2017). *형태 초점 접근법이 중학생의 영어 독해력, 문법 학습에 대한 인*

- 식, 흥미도,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 윤정현. (2016). 한국 대학생들의 문법 지식 및 외국어불안이 영어 말하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윤혜진. (2016). 영어 문법 학습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이소영. (2004). 초등영어 문법 지도가 언어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시제 지도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이수진. (2013). EFL 환경에서의 영문법 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충주, 충북: 건국대학교.
- 이은정. (2013). 영어동화책 활용 수업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이지선. (2018). 영어 교과서에서 영어 문법 지도 순서가 학습자의 문법 이해력 및 문법 활용능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임호성. (2017). 블렌디드 러닝 기반 형태중심교수법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목표 영어 문법 학습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장우경. (2016). EFL 환경에서의 언어학습 향상을 위한 중학교 영어문법교육의 효과: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강릉, 강원도: 강릉 원주대학교.
- 정미은. (2008). 정의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협동학습 적용 현황.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부산: 부경대학교.
- 조세경. (2009).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2(3), 211-228.
- 주향아. (2017). 영어 마을 체험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 지현정. (2017). *명시적 교수법과 PACE 교수법이 중학교 2학년 영어 학습자의 관계 대명사 학습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차은희. (2017). *명시적 문법 지도와 말하기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 최현정. (2009). *문법 교육이 초등학생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이슬. (2018). *영문법 학습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가정법 활용 말하기에 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 황정현. (2015). *초등영어 수업에서 게임사용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 Bat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4).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New York, NY: Academic Press.
- Batstone, R. (1994). *Grammar*. Oxfor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 Addison Wesley Longma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d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ho, M. K.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earner beliefs with reference to L2 speaking profic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reswell. J. W. (2015).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4th ed.). Upper

- Saddle River, NJ: Pearson.
- Ellis, R. (2006). Current Issues in the Teaching of Grammar: An SLA Perspective, *TESOL Quarterly*, 40(1), 83-107.
- Gardiner, J. (2012). Student attitudes to EAP grammar instruction. *Cambridge TESOL: Research Notes*, 48, 11-17.
- Gutierrez, X. (2013). Metalinguistic knowledge, metalingual knowledge, and proficiency in L2 Spanish. *Language Awareness*, 22(2), 176-191.
- Larsen-Freeman, D. (2001). *Teaching grammar*.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or foreign language* (3rd ed.) (pp. 251-266). Boston, MA: Heinle & Heinle.
- Lee, E-H., & Oh, H. J. (2017). EFL learners confidence in English grammar.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83, 303-325.
- Long, M. (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In K. de Bot, D. Coste, R. Ginsberg, & C. Kramsch (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39-52). Amsterdam: John Benjamins.
- McNamara, T. (1996). *Measuring second language performance*. London, Engand: Longman.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Pienemann, M. (1984).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the teachability of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 186-214.
- Renou, J. (200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second-language proficiency of adult learners of French. *Language Awareness*, 10(4), 248-267.
- Spada, N., Jessop, N., Suzuki, Y. T., & Valeo, A. (2014). Isolated and

- Intergrated form-focused instruction: Effects on different types of L2 knowledge. *Language Teaching Research*, 18(4), 453-473.
- Thornbury, S. (2011). *How to teach grammar*. Harlow: Longman.
- Ur, P. (1988). *Grammar practice activities: A practical guide for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 기초 조사 설문지 >

◆ 다음은 설문 응답자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기초 조사 설문지로서 개인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도 누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각각의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신의 영어 공부 방법은?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골라 주세요.)

① 학교 영어 수업 ② 영어 학원 ③ 과외 ④ 학습지 혹은 문제집 ⑤ 기타

2. 영어권 나라에서 학습했거나 거주 또는 여행한 경험은?

① 2년 이상 ② 6개월 이상 - 2년 미만 ③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④ 1일 이상 - 1개월 미만 (가족 해외여행포함) ⑤ 없음

3. 나는 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영어를 () 시간 공부한다.

① 5시간이상 ② 3-4 시간 ③ 1-2 시간 ④ 1시간 미만 ⑤ 0시간(하지 않음)

4. 개인적으로 영어 학습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영역은? (복수응답가능)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독해 ④ 작문 ⑤ 문법

5. 학교 영어 수업을 통해 가장 배우고 싶은 영역은? (복수응답가능)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독해 ④ 작문 ⑤ 문법

6. 나의 영어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어학교재(문제집) ② 사설학원 ③ 학교 영어 선생님 ④ 자율학습(스스로 공부하는 것) ⑤ 기타 ()

7.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수업이 재밌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문법지식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2

< 영어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에 관한 설문지 >

※ 다음 설문 내용은 여러분의 영어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영어 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1. 나는 영어 문법 학습에 관심이 많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영어 문법 수업이 다른 영역(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보다 재밌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영어 문법 시간에 새로운 문법 내용이 나오면 호기심이 생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나는 영어 문법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문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나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는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영어 수업에서 문법 배울 때가 가장 지루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영어 공부할 때 주로 문법을 공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문법에 흥미가 없어서, 영어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영어 문법에 흥미를 느끼면, 영어 말하기에도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3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 설문지 >

※ 다음에 오는 질문 내용은 영어 말하기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나는 영어문법을 배우고 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영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휘, 독해, 듣기보다 문법 문제가 더 자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문법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나는 영어 문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영어 문법에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영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기면 영어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영어 문법 실력이 좋을수록, 영어의 모든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실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이 쉽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영어문법에 자신이 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우면 불안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4

[인터뷰 질문]

1. 영어를 좋아하십니까?

이유 > 1) 예 :

2) 아니오 :

2. 영어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영역(말하기 / 읽기 / 쓰기 / 문법 / 듣기)은 어떤 것입니까?

3. 학교에서 하는 영어 문법 수업은 재미있습니까?

이유 > 1) 예 :

2) 아니오 :

4. 영어 문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 1) 예 :

2) 아니오 :

5. 학교에서 배운 영어 문법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0 % ~ 100 % 중에서)

이유 > :

6.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 공부가 말하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 1) 예 :

2) 아니오 :

7. 문법을 잘 알면 영어 말하기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 : 1) 예 :

2) 아니오 :

8. 학교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영어 문법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록 5

< 문법 지식 평가지 >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He (is / are) very kind.
2. They (isn't / aren't) my brothers.
3. She (study/ studies) English hard.
4. You (don't eat / doesn't eat) meat.
5. He is (going to / goes to) meet his friend tomorrow.
6. I want (see / to see) my mom.
7. We (have to / has to) talk with you.
8. I saw the girl (who / which) has a red bag.

B.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9. You will finish _____ English. (study)
10. There _____ some fruits on the table. (be)
11. _____ your sister go to the park yesterday? (do)
12. I _____ in Korea last year. (be, not)

C.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이 어법에 맞으면 (T) 로, 틀리면 (F) 로 표시하시오.

13. Will you plays soccer tomorrow? ()
14. I won't give the doll to my sister. ()
15. It wills snow tomorrow. ()
16. She had to visit Gwangju next year. ()
17. We know that he doesn't speak English. ()

D.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8.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면, 너는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 You won't be late _____ you get up early.

E. 밑줄 친 단어를 비교급 / 최상급으로 고치시오.

19. Amy is pretty than Susie. (비교급) ->

20. Is Jiko famous singer in Korea? (최상급) ->

부록 6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 분석 채점 기준표

영역	1점	2점	3점	4점	5점
유창성	너무 더듬거리어서 대화가 불가능하다.	느리고 부자연스럽게 말한다.	유창하지는 않으나 자신 있게 말한다. 주저하며 말한다. 약간의 바꿔 쓰기를 한다.	어느 정도 유창하게 말한다. 거의 더듬지 않는다. 바꿔 쓰거나 완곡한 표현을 쉽게 한다.	상당히 유창하게 말한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한다.
정확성	전혀 문법에 따르지 않는다.	자주 문법상의 실수를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모국어 사용자만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문장은 의미전달이 정확하다. 복잡한 문법의 사용은 피하거나 잘못 표현된다.	모든 기본구조들을 사용하여 말한다. 복잡한 구조도 사용한다. 종종 틀린 유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미전달은 정확하다.	아주 드물게 문법상 실수를 한다. 잘못된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적합성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특정한 일을 표현하기에 필요한 어휘가 부족하다.	특정한 일에 대해 완곡하게 간단하게 표현하기에 충분한 어휘를 사용한다.	특정한 일에 대해 적당한 어휘를 사용한다. 문장 상 중요하지 않은 어휘를 가끔 틀리게 사용한다.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세세한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 일을 표현한다.

(최현정, 2009)

부록 7

영어 말하기 평가지 > (유창성)(정확성)(적합성)

1. Can you introduce about yourself?()()()
2.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
3.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inner tonight? ()()()
4.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Christmas day? ()()()
5. What do you want to be in future? and the reason? ()()()
6. Where is the dog? (see the picture) ()()()



7. How does he look like? ()()()



8. What are they doing now? () () ()



9. Look at the below picture and tell me more than two sentences using comparative. () () ()

tiger



VS

cat



VS

snail



10. What should they do at below site? () () ()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문지와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들은 한국 영어 교육발전에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